

이러크 석유산업 전망

1. 머리말

에너지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는 국민경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물자의 안정공급은 지금까지 ① 국가비축의 증강과 민간비축을 기본으로 하고, ②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중심으로 대처해 왔다.

원유조달은 ① 단순한 민간기업의 매매거래, ② 정부간 거래, ③ 석유개발에 의한 조달 등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 중요지역인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때문에 정부는 「원유도입 다변화」정책으로 안정공급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 정책은 환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동 지역의 원유생산 감소와 석유수요증가로 다변화정책은 실패했다.

세계적으로 공급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중동의 일부 산유국밖에 없고, 반면에 아시아의 공급여력은 감소하는 가운데 극동지역(특히 한국, 일본)은 중동의존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활한 공급확보를 위해서는 평시와 긴급시로 구분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평시에 대해서는 향후의 수급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함으로써 최적의 공급확보가 가능하다는 점과, 중동 산유국 스스로의 판로확보와 공급안정화정책을 감안하면 중동의존도 증대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정치불안 때문에 긴급시의 문제를 고려할 때 한 국가보다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지역은 향후 급속도로 중동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역내 정치·경제등의 여러분야에서 보다 큰 역할이 기대된다. 극동지역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지만 유비축등의 공급확보면에서도 지역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극동지역은 원유의 상당부분을 중동에 의존

하고 있고, 그 의존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석유파동이 발생해도 석유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석유산업만이 아니라 외교(특히, 왕실), 무역, 산업이 전, 고용창출등 중동제국과의 관계증진을 강화해야 한다.

걸프전이 끝난지 5년, 패전국인 이라크 국민은 UN의 석유금수조치로 궁핍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으나, 후세인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하다. 오히려 승자였던 다국적군측에서 이라크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러한 가운데 UN안보리는 지난 4월 14일, 생필품 구입에 한해 이라크에게 석유수출을 일부 허용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반년동안 20억달러 상당의 석유) 1991년에도 같은 결의가 채택되었을 때, 이라크는 「석유 매매에 대한 개입은 주권침해」라며 완강히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후세인 대통령은 또다시 결의 수락을 거절했다. 그것은 생활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후세인 대통령보다 미국 등 서방 세계로 향해져 있고, 경제제재는 오히려 국민단결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시점에서의 UN결의 안 수락은 UN에 굴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게다가 안보리측은 분열기미를 보이고 있다.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미·영 뿐이고, 프랑스·러시아·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제재해제를 목표로 유전개발이나 무역확대로 이라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민간인권단체인 *Freedom House*가 최근 발표한 세계각국의 민주화조사(1994년)에 의하면, 191개국중 민주국가라고 인정된 국가는 전년보다 7개국이 늘어난, 과거 최고인 114개국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등 21개국이 가장 「억압적인」국가로, 「최악중의 최악」국가인 이라크, 북한, 수단

등 3개국이 분류되었다. 어쨌든 이라크는 다량의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라크는 UN의 경제제재 해제 후에는 여러 국가의 기업에게 원유개발에 참가 시키고, 특별가격으로 국제시장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걸프전에서 패한 사담·후세인 정권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정부도 용납하지 않을 자세이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에는 후세인을 대신할 지도자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라크에서의 석유자원과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로 이라크정부의 석유산업현황과 향후정책에 초점을 두고 향후 동향을 전망한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직후인 1990년 8월 UN은 1차산업물의 수출입, 자금활동등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경제제재를 채택했다.

2. UN의 경제제재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직후인 1990년 8월 UN은 1차산업물의 수출입, 자금활동등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경제제재를 채택했다. 그것은 정전후,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금수를 해제, 석유의 일부수출을 인정했지만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걸프전 후 5년, 현재 후세인 정권은 군 및 치안조직의 탄압, 바하스당의 조직력, 불안정하면서도 국민의 지지라는 부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1995년 후세인 정권은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면타개에 나설 전망이다. 그 주요 주제는 UN의 경제제재해제이다. 이 중에서 후세인 정권은 경제제재문제를 안보리의 60일마다의 정기 제재재검토에 맞추어, 단계적 해제가 진전 되도록 하려 할 것이다. 안보리는 이 결의 및 기타 이라크 관련결의를 이용해 패배한 침략국가 이라크에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회복을 위한 조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UN헌장 제39조에 의거 이라크의 주권을 UN의 관리하에 두었다.

UN은 처음으로 주권국가에 대해서 국경, 수출수입의 용도, 채무의 부담비를 지시, 기밀을 요하는 군사 구역에 대한 감시요원의 출입을 허락하게 하고, 보유 가능한 무기의 종류를 정한 것 외에, 비준해야 하는 조약에 대해서까지 명령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마치 의회의 입법이나 법정의 판결과 같이 반대없이 강요되었다. 게다가 안보리 결정 중에는 무기한 효력을 갖는 것, 예를 들면 국경확정과 같이 장래 변경하지 못할 것도 있다.

그 안보리 결의에 의하면 이라크는 아직도 법적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는 안보리 및 안보리내에 보상위원회가 인정한 조항에 대해서 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가 완화되거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한, 이라크 국민은 현재 2,335,000건, 1,70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이라크는 2개월마다 UN안보리의 정례 제재재검토시에 「해제」를 노리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에 강한 로비를 하고 있다. 1994년 11월 재검토시 정전결의 687호(1991년 4월 채택)에 관해서 결의문 대로 이라크의 원유수출재개 인정을 요구하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등 3개국과, 결의문 성립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① 쿠웨이트인의 귀환촉진, ② 쿠웨이트 자산 반환, ③ 인권보호까지 언급해, 지속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영·미 양국등 그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쿠웨이트 국경에서 이라크군의 군비증강을 금지한 결의 949호로 제재지속이 채택되어 미국·영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 14일 UN안보리는 이라크의 석유금수를 한정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90일동안에 10억달러 상당의 석유매각을 인정하고 유효기간을 180일로 하며, 그 후의 연장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반년만에

UN의 이라크에 대한 제재는 이라크의 원유수출 재개인정을 요구하는 러시아·중국·프랑스 3개국과 지속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영·미양국등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총액 20억달러 상당의 수출이 가능하며, 1991년 결의된 16억달러보다 4억달러가 증액되었다. 동 결의안은 수출을 UN관리하에서 두는 것은 지난번과 같지만, 대금의 30%를 배상기금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 이번은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족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90일당 2억달러, 대량파괴무기 장기감시시스템의 운영비로 1억달러등 UN의 취득분이 대폭으로 증가하지만, 반면에 이라크의 수입은 90일당 4억달러로 지난번 보다 6,000만달러 감소하게 된다. 이는 현재 유가기준 65만b/d전후의 수출량으로, 실질가격은 7\$/B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라크 혁명지도평의회와 바하스당 지도평의회는 합동회의에서 안보리의 잠정수출결의는 이라크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하고 각의에서도 수락거부를 결정했다. 그 후, 국회도 거부했다. 이는 전 결의안 보다 조건이 나쁘고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으며, 동 결의안을 수락하면 향후 석유금수가 계속 연장되고, 계속 저가격수출을 강요받을 공산이 크며, 이라크가 구상하고 있는 프랑스·러시아와 제휴하여 유전을 개발하거나 생산량 증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권침해등 국가의 당면문제외에, 장기적인 석유산업의 관점에서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UN이라크 대량파괴무기폐기 특별위원회는 이보다 먼저 생화학무기의 개발상황에 의혹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UN특별위원회(롤프 에케우스 위원장)는 안보리로 보낸 보고서에 세균무기에 불가결한 대량배양기가 행방불명이라고 지적, 「동 사안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확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 품목이 세균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정거리

150Km이상의 미사일, 화학무기, 세균무기, 핵무기 등 4분야에서 이라크의 과거활동 및 특별위의 감시, 검정체제의 실정을 상술하고 있다.

후세인 대통령은 「피를 흘려 확보해 온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라크 국민은 어떠한 일이라도 각오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인질로 제재의 전면해제를 노리고 끝까지 저항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도 영·미 양국과 러시아·프랑스·중국이 각각의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향후 서방제국에게 이라크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UN안보리의 균열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3. 경제정세

이라크경제의 기본특질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1927년 이후 처음으로 석유이권료가 들어온 이후 석유산업의 발전은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기타 제조업의 발전을 크게 웃돌아 국가재정 및 경제전체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었다. 석유부문의 위치는 석유자원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증대하고, 특히 석유가격인상 이후에는 경제의 사활을 쥐기에까지 이르렀다. 석유부문은 GDP의 54%(1976년)을 차지했고, 정부세입, 수출총액에 차지하는 점유율도 크다. 이라크는 현재 탈석유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석유의존(mono culture) 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는 사담후세인 대통령이 건재하다. 경제제재 지속으로 국민생활은 궁핍하지만, 군사력의 재구축과 산업부흥에 힘쓰고 있다. 핵무기, 화학무기, 세균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는 UN의 지시로 폐기되기로 되어 있으나, 재래식 무기의 보유는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으로부

터 전차부품이나 지대공·지대지미사일등을 조달해 페르시아만에서는 최대인 4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UN제재의 영향으로 이라크경제사정이 피폐에 달한 가운데, 지난 4월초 이라크정부는 「소맥과 대맥의 정부매입가격을 3배인상 한다」는 발표를 하는 등 최근의 이라크 경제사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인플레이션급등으로, 현재는 닭한마리의 가격이 시민의 평균월급에 필적하는 등 이라크 통화인

디날의 공식환율은 1달러당 0.56디날('95년 1월 현재)이나, 암거래환율은 무려 1달러당 1,200디날에 달하고 있으며, 의약품 부족도 심각해 이라크정부의 발표로는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93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후세인 대통령은 1993년 9월과 1994년 5월에 내각개편을 단행하는등 경제적 빈곤 타개에 힘을 쏟았다. 특히 1994년 5월의 내각개편에서는 수상을 경질하며, 자기자신이 수상에 취임, 부수상을 3인으로 하고, 아지즈부수상에 이어, 라마단부대통령, 즈바이디 전수상이 부수상에 취임했다.

신 내각발표에 즈음하여, 대통령은 스스로 경제위기탈출에 나설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걸프전쟁에서 타격을 입은 석유의 생산능력은 위기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하루생산량 200만배럴이상으로 회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수출은 경제제재로 금지되고 있다.

이라크정부는 석유수출재개를 위해서 각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협력을 구해왔다. 미국, 영국이 제재연장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제재해제지지로 태도를 바꾸었다. 수출재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량 파괴무기

**쿠웨이트 침공 5년이
지난 현재 이라크는
경제 제재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으로 높은 인플레
와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 폐기」 「쿠웨이트와의 국경확정」등 이라크에게 부과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판단 없이 해제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1,000억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거액의 배상금지불 때문에, “걸프 후유증”은 지금도 이라크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국제연합에 의해 만들어진 「인도물자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1994년 1월이래 40억달러 이상의 수입이 인정되어 1993년의 합계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출국이 어떻게 대금을 회수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라크의 외자준비는 이미 전쟁전에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가 바터무역거래의 지불수단으로 불법수출되고 있다는 소문외에 「선급원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현시점에서 상품의 인도를 받고 국제연합의 제재 해제후에 원유를 싼가격으로 수출한다고 하는 것이나, 이라크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1992년, 인도물자 가이드라인에 의해 약 10억달러분의 식료, 의약품등의 수입을 인정했으나 1993년에는 30~40억달러로 증가했고, 국제연합측에 의하면 1994년은 7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업자 대상도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거의 무명의 레바논, 그리스, 터어키의 상사였으나 1994년의 최대업자는 한국의 현대그룹으로, 이미 10억달러를 넘는 물량(전체 4분의 1)이 통관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유를 적재한 이라크의 탱크로리가 이란의 국경 부근의 이라크령Khaneguin까지 도달하면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의 아들 Uday가 경영하는 민간기업이 이란산 쌀, 소맥분, 과일, 전차나 자동차부품, 이란산 타

이어등과 교환하고 있고, 원유가격은 국제가격보다 5\$/B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으나 국제연합측에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터어키나 쿠르드족이 관여해 이라크산 석유제품을 밀수출하고 각종물품과 교환하는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서방측 정보통에 의하면 국제연합의 경제제재에 의해 경제, 국민생활의 빈궁에다 일부군에 의한 쿠데타미수사건이 전해지고, 이라크의 후세인대통령이 스위스에 있는 비밀계좌로부터 자산을 조금씩 빼내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후세인 대통령의 자산에 대해서는 걸프전쟁종결시에 약 3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영국, 독일등에 거주하는 일가친척의 자산과 쿠웨이트 침공에서 강탈한 수십억달러의 자산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정권유지와 자기보안을 위한 거액의 자금이 스위스의 계좌로부터 빠른 속도로, 그것도 큰 단위로 출금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제재로 중단되고 있는 담배, 술, 통신기기, 공업부품등의 수입자금, 요르단에 설립된 비밀무역회사의 자금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의약품이나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하루 5만배럴의 석유와 2만 5,000배럴 상당의 석유제품을 요르단에 수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을 뿐, 그렇지 않아도 제재망을 피한 위법수출과 유럽, 러시아가 이라크에 석유기술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이대로 방치하면 제재는 끝을 맺지 못할 것이며, 각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국제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은 1992년,
인도물자 가이드라인에
의해 약 10억달러분의
식료, 의약품등의 수입을
인정했으나 1993년에는
30~40억달러로
증가했고, 1994년은
7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석유산업의 현황과 전망

지난 3월 11일, 바그다드에서 이라크석유부 주최 석유세미나가 개최되어 약 30개국의 석유관련자 250명이 참가했지만 미국은 참가하지 않았다.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프랑스로, 엘프·아키테뉴·토탈이 참가했고, 이탈리아에서는 AGIP, 독일에서 DEMI-NEX, 핀란드에서 NESTE,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대만의 CPC, 한국에서 삼성과 현대,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석유가 참가했다. 이라크정부는 향후 UN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과거 20년간 지탱해온 국영화정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 이라크측이 발표한 이라크 석유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가. 원유생산

이라크의 원유생산량은 1979년~1980년 350만b/d를 상회해서 최고에 달했다. 그후 1980년 9월의 이란·이라크전쟁의 발발과 수출시설의 폐쇄로 약 100만b/d로 떨어졌다. 1987년에는 200만b/d, 1990년 초반에는 300만b/d, 현재는 100만b/d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생산능력문제 때문이 아니라, UN의 석유수출금지 때문이다.

원유생산능력은 1976년에 약 275만b/d였다. 1976년~1980년의 5개년계획에서 남부의 신규유전 개발과 북부유전의 확장계획을 추진한 결과, 1980년 초반에는 생산능력이 380만b/d에 달했다. 그후 증산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내세워졌으나,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터어키를 경유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자 1983년에는 생산능력이 110만b/d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석유개발이 미약하나마 지속되었으나 Majnoon, NahrUmr, Halfaya 등의 거대

석유개발계획을 연기해, 수출능력이 1983년 생산능력의 30%이하로 떨어져 주로 수출제시설의 재건·확장에 힘을 쏟았다. 1990년까지 생산능력은 350만b/d, 생산량은 314만b/d, 수출량은 278만b/d에 달했다. 그러나 걸프전쟁에서 폭격을 당한 결과, 1991년 3월의 생산능력은 110만b/d로 떨어져 그 공급능력의 대부분은 북부지역의 유전생산량이었다. 현재의 원유생산능력은 260만b/d에 달하고 있다.

**이라크의 원유생산량은
1979년~1980년
350만b/d를 상회해서
최고에 달했다. 그후
1980년 9월의 이란·
이라크전쟁의 발발과
수출시설의 폐쇄로
약 100만b/d로
떨어졌다.**

나. 원유매장량

이라크에서 1927년 북부에 거대한 Kiruk유전이 처음 발견되었고, 그후 Zubair, Kumaila 등 거대유전이 발견되어, 현재 원유확인매장량은 1,120억배럴 이상으로, 이것은 OPEC제국 확인매장량의 약 14%, 세계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유전은 73개, 이중 9개는 초거대, 22개는 대형으로, 제3기층이 24%, 백악기층이 76%이다. 발견후 평가가 끝난 73개중, 불과 15개 밖에 개발되고 있지 않아 생산중인 유전매장량은 약 400억배럴이다. 이라크에서는 가스에 대해서는 석유만큼 큰 관심은 없고, 채굴활동 결과 3조입방미터의 가스매장량이 발견된 상태이다.

다. 증산계획

이후의 원유생산규모는 세계적인 환경보호대책의 동향과 이라크정부의 대응여하에 따르겠지만 이라크의 OPEC내에서의 기존의 점유율 유지와 OPEC제국이 특별한 감산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세계공급의 이라크 원유소유량은 2000년에 500만b/d, 2010년에 600만b/d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OPEC제국 대부분이 생산능력을 증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라크 원유에 대한 공급의존도는 더

육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신생대와 중생대층에서 약 2,140억배럴 규모의 석유와 160조입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원유생산능력은 1990년 이전에 정한 증설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3단계로 나눠 ① 420만b/d ② 500만b/d ③ 600만b/d로 높여갈 방침이다. 발견유전 73개중 15개만 개발되었다.

라. 원유 성상

향후, UN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수출원유의 수출가능량과 성상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생산능력이 600만b/d에 달하는 시점에서는 Basrah Light 원유(API35~40도)가 신규로 등장하고, Yamama층을 완전히 개발하면 80만b/d의 생산능력에 달하는 데다가 Basrah Heavy와 Basrah Medium의 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100만b/d정도의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투자비가 최저인점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것도 ① 기존의 인프라가 있는 유전 ② 생산능력이 있는 유전 ③ 저장, 수출시설과 가까운 유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000~4,000달러/일/배럴, 그 자금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대금에 의해 주로 조달된다. 이를 위해 과거 4년간 외국의 석유회사와 교섭하고 있으며, 향후 4대유전이 (Majnoon, NahrUmr, Halfaya, 일부 West Qurna등) 개발생산 대상이 된다.

투자비는 25년간에 약 6,500~7,000달러/일/배럴, '96~'98년에(생산량이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4,500~5,000달러/일/배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신규로 200만b/d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96~'98년간에 약 100억달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유전과 모든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2~3년에 동

자금은 조달 가능하다. 이들 유전의 생산비용은 세계 최저수준 또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비용을 더욱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마. 시설확장

저장시설은 현재의 약 1,400만배럴을 약 2,100만~2,400만배럴로 확장한다. 이는 Fao의 탱크기지를 재건하고, 구경 42~48인치의 파이프라인 2~3개를 120~130Km 떨어진 Fao 까지 신설하며, 제2단계로 구경 42인치라인을 약 230Km짜야 펌프지를 4기 증설하는 것이다. Al Bakr와 Al Amaya의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지역의 기존저출기지를 적어도 각 160만b/d로 선적능력을 높이고 거기까지 해저파이프라인을 2개 (구경 48인치, 54Km) 증설하며, 일점계류부이를 4기증설하는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합계 약 1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바. 정제설비

이라크의 원유처리능력은 1980년말 70만b/d, 1990년대초에는 14만b/d를 이라크중부에 신설했다. 석유제품규격은 국제수준보다 뒤떨어지나 수소탈황, 나프타 개질, 수첨분해시설 등을 증설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 결정된 계획에서는 휘발유의 무연화, 이소멀리제이션 설비를 4개소, 합계능력 4만7천b/d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MTBE를 생산하는 시설을 계획했으나, UN의 경제제재 단행으로 이들 설비증강은 중지되고 있다. 저장시설은 걸프전쟁 직전 33개소 170만평방미터, 경질제품의 수송용망으로서 능력 88만b/d 연장 2,300Km, 이밖에 증유를 발전소용으로 4만5,000b/d 공급하는 200Km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걸프전쟁에서 공중폭격으로 하류부문의 능력은 거의 반감되었다. Basrah, Baghdad, Baiji의 3개 정유공장,

**이라크의
하류부문시설 즉,
정제시설, 저장시설,
주유소등은 걸프전 당시
주요공격대상이 되어
파괴되었지만 급속한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탄유 시설, 저장시설, 수처리시설, 주유소등이 공격 대상이 되어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재건작업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제품의 소요량은 UN경제제재로 화학약품을 입수할 수 없어 품질은 떨어지지만 자급자족하고 있다.

사. 향후 석유제품 수요

과거 26년간의 석유소비동향을 분석하고 이번 UN경제제재에 따른 마이너스요인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다.

이라크의 석유제품수요

(단위:만톤)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L P G	154	215	223	259
휘발유	292	339	456	521
중간유분	500	607	875	979
유탄유	26	30	35	39
아스팔트	40	105	120	135

5. 걸프지역 국가의 군비확장

이라크이 쿠웨이트에 대한 군사행동과 그후의 행위는 전쟁다발지역이라는 중동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정부가 관여하고 연간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무력전쟁」이라는 전쟁의 정의에 기초, 1945년 이후 1989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집계, 정리하면 제 3세계중 중동이 특별히 전쟁다발지역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첫째, 발생회수에서 보면 제3세계국가 발생회수가 많다. 그런 가운데 중동의 27회는 극동의 34회, 아프리카의 30회에 이어 제3위이며, 제4위인 남미 23회와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다. 둘째로, 평균 전쟁지속기간도 중동의 4년은 아프리카 7년, 극동 5년을 밀돌고 있다. 셋째, 전쟁당 평균사망자를 비교한 경우도 중동은 12만 8,000명으로 극동 31만 3,000명, 남아시아 18만8,000명, 아프리카 15만 1,000명보다 적다.

그러나 이런 통계자료에도 불구하고, 중동이 전쟁지역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우선 발생회수는 극동, 아프리카에 미치지 못하나 중동지역의 전쟁은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극동의 전쟁이 12개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해, 중동의 전쟁은 16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중동을 진원지로 하는 제1차, 제2차 석유파동이 각각 제4차 중동전쟁, 이란 혁명이라는 전란을 계기로 하고 있는 점도 중동의 이미지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제1차 석유파동은 국제사회에 아랍국가와 팔레스타인 문제의 인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대서특필된 사건이었다. 경제면에서도 불안정감은 마찬가지이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의 특징은 첫째, 국가간전쟁과 내전시의 평균사망자수가 거의 같다는 점이다. 둘째,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동전쟁은 단기전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확실히 전투행위는 단기전일지도 모르나, 적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셋째, 중동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희생자가 많은 국가간 전쟁을 경험한 것은 이란과 이라크였다.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두나라 합쳐서 1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페르시아만 아랍국가들이 앞다투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것은 이라크의 위협이나 군사대국 이란의 그늘에 걸프지역국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선진각국도 동서냉전의 붕괴로 격감된 국내수요를 메꿀 시장으로서 무기매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원유의 2/3가 집중된 걸프지역국가들의 군비확장은 중대한 긴장요인이 될 수 있다.

1990년의 걸프위기를 계기로 아랍 6개국의 무기조달의 기세는 대단하다. 1994년 이후 계약만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요격미사일 12기, 영국에서 호크기, 프랑스로부터 대공미사일·프리게이트함 2척, 쿠웨이트는 미국에서 M60전150량, 러시아에서 스메루테 다연제 로켓시스템, 오만은 영국에서 경장갑차 80량, 카타르는 프랑스에서 미라쥬 2,000전투기 등이다.

이처럼 이란에 전투기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걸프지역 군비확장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도 수호미 27등 최신훈 전투기나 대공미사일의 매매를 기도하고 있다.

걸프지역국가들의 군비확장의 가장 큰 동기는 위협에 대해 현재의 방위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고 아랍동맹국의 지원도 불확실하다는 현실인식이다. 작년 10월 이라크군 침공시 쿠웨이트는 맨 먼저 미군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걸프전 후 GCC가 공동방위의 파트너로 선언한 시리아·이집트에게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국은 미군의존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자국부담의 방위력확충을 진행해 왔다. 두바이發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는 1995년 1월부터의 신5개년계획초안에 징병제 도입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실현되면 걸프에서는 처음이다.

6. 맺는말

석유안정공급의 확보는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최대중요과제인데, 극동지역은 석유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여 중동의존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탈중동정책이 석유의 안정공급정책의 큰 기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동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동의존도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소의 냉전구조가 종결됐다고는 해도 종교적·민족적 대립은 여전히 중동에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팔레스티나에 잠정자치가 시작되어 중동평화가 한 단계 진전됐다고 해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냉전구조의 종결에 의해 국지적인 지역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냉전구조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중동지역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발적인」사건·사고의

발생에 의해 유전이나 선적시설, 주유소 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사우디·쿠웨이트등에서의 유전개발을 자국 원유조달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걸프지역에서 지중해로 통하는 아라비아반도 횡단(TAP) 파이프라인의 건설이나 원유의 수송방법으로 정착된 대형유조선은 미국의 효율적인 원유수송방안이 낳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에너지는 남북아메리카대륙·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내에서의 자급자족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사우디는 1990년 여름 걸프위기를발발시 국제적인 원유수급 긴축을 계기로 대증산에 착수했다. 걸프전 종결후에도 사우디는 고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고, 현재 생산능력을 1,000만b/d(연산 약 5억 8,000만KI)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란·UAE등 다른 중동산유국도 능력증강에 적극적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이란의 복귀라는 “불씨”를 안고 있다. 사우디·이란의 정치적인 대립도 있고, 생산부문에서의 OPEC복권이 그대로 국제적인 원유가격지배에 결부되는 것도 아니다. 그

렇다 하더라도 원래 사우디는 확인매장량이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석유초대국이다. 구소련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에서도 세계제일을 차지한 사우디가 OPEC내부의 입장을 보다 공고히 하여, 원유의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국제에너지 수급정세에 입각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의 추진이 급선무이며, 그 때문에 「에너지원 도입선의 다변화(분산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체제정비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순간석유정책, '95.7.5>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의
추진이 급선무이며,
이 때문에 「에너지원
도입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